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OECD 제67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 및 제57차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 참석

## 1. 출장목적 :

- OECD 농정시장작업반(57차 APM) 및 농업무역합동작업반(67차 JWPAT) 회의 참석
  - 회의참석(2012.5.29~31)
  - 정책과제(2012년 OECD 농식품분야 연구 결과) 수행목적

##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자 | 출장기간                         |
|-----|------------------------------|
| 문한필 | 2012. 5. 28(월)~6.1(금)(4박 5일) |
| 정호근 |                              |

- 출장지: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er

## 3. 출장 일정

| 일 시       | 장소                     | 내용               | 비고    |
|-----------|------------------------|------------------|-------|
| 5월 28일(월) | 인천→파리                  | 출발, 도착           | 0박 1일 |
| 5월 29일(화) | OECD Conference Centre | JWPAT 및 APM 회의참석 | 1박 2일 |
| 5월 30일(수) | OECD Conference Centre | APM 회의참석         | 2박 3일 |
| 5월 31일(목) | OECD Conference Centre | APM 회의참석         | 3박 4일 |
| 6월 1일 (금) | 파리→인천                  | 귀국               | 4박 5일 |

#### 4. 주요 내용

I. 회의명 : 제57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5.29일 오후 ~ 31일, 파리 OECD 본부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농림수산물부 국제협력총괄과 김호균 사무관, 농업정책과 강희중 주무관, 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문한필 연구위원, 당대표 부 이안호 참사관

#### V. 핵심요지 :

-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평가(Monitoring&Evaluation) 연례보고서의 2012년판 공개가 결정됨.
  - 공개 결정 과정에서 농업정책평가지 정책평가모형(PEM) 활용 및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서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회원국간 주로 논의됨.
- FAO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농업전망(Outlook) 보고서는 OECD-FAO 공동으로 6월 로마에서 발표하기로 결정됨.
- 사무국의 일반서비스추정치(GSSE) 개선작업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회원국들은 개념 및 측정가능성, 국가별 비교가능성, 활용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
- 위험관리 및 농업투자 등에 관한 OECD의 연구 진행상황, 개발도상국 및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농정평가 작업에 대한 사무국의 설명이 있었으며, 식품체인네트워크 미팅은 10.25~26일 개최될 예정임.

#### VI. 관찰 및 평가/건의 :

- 향후 OECD 농업위원회의 농업정책 평가시 정책평가모형(PEM)의 활용

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PEM모델 자체에 대한 분석 및 우리나라 농정에의 적용에 관한 사전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무국은 일반서비스추정치(GSSE)의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이 보다 엄밀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사무국이 제시하는 GSSE의 범주 및 분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해당 정책 범주화 작업을 미리 실시하여, 향후 자료제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함.
- 식량안보에 관한 위험관리 연구는 올해 및 2013~14년 기간에도 지속될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의견서를 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연구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VII. 상세내용 :

### 1. '농업정책평가 보고서 2012년판' 공개 결정 논의

#### (1) 농업정책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1차 토론 (5.29일 오후)

- 먼저 개별 회원국 농업정책을 평가한 Part II 부분에 대한 해당국의 검토 의견 발표가 진행됨.
- 사무국은 국가별 정정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국가별로 담당관과 개별적 서면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종본을 완성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는 환율변동 외에도 기상악화, 가축질병발생 등의 요인이 국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다음으로 회원국 농업정책 동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다룬 Part I, Chapter 1 부분에 대한 회원국의 검토의견 발표가 있었음.
- 미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자국 정책과 관련된 서술의 사실관계 정정을 주로 요청함.

- 일본, EU, 노르웨이, 우리나라는 '농정개혁 평가(85~92단락)'부분의 서술이 편파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PEM모델은 과거 논의시 PSE나 농정평가와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음에도 본 보고서에서 PEM을 이용하여 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함.
- 뉴질랜드, 호주 등은 PEM모델을 활용한 분석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농정평가 작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개진함.
- 2012년판의 특별주제인 농업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촉진을 다른 Part I, Chapter 2 부분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제시가 이루어짐.
- 노르웨이는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농업의 지속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장에 왜곡을 주는 정책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Part I 부분에 관한 수정본을 다시 제시하기로 하였음.

## (2) 농업정책평가 보고서 수정본을 바탕으로 한 2차 토론 (5.31일 오전)

- 사무국은 1차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Part I 부분의 수정본(첨부 1 참조)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승인을 요청함.
- Executive Summary 및 Chapter 2 부분에 관해서는 회원국들이 요청한 경미한 수정사항을 사무국이 수용하여 수정이 이루어짐.
- Chapter 1 부분에서는 정책평가모형(PEM)을 활용한 부분 및 PSE가 개선된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짐
- 일본은 PEM모델의 활용방식에 관하여 회원국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회의에서 아직 농정평가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함.
- 호주 및 뉴질랜드, 영국은 PEM모델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프랑스 · 노르웨이 · EU 등은 PEM모델의 한계를 명시하는 주석을 다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안함.
- 한편 호주와 캐나다는 2011년 전반적인 PSE가 낮아진 것은 국제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프랑스는 PSE가 낮아진 것이 농업정책의 개선(progress)이라는 보고서 집필 방향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음.

- Chapter 1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무국은 재수정안을 만들어 회원국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로 결정함.

### **(3) 농업정책평가 보고서 재수정본에 대한 3차 토론 (5.31일 오후)**

- 사무국은 2차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수정본(첨부 2 참조)을 회원국들에 제시하고, 공개 승인을 요청함.
  - PEM모델의 특징 및 한계에 관한 주석이 추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무국의 서술 방식에 관하여 회원국들이 동의하였음.
  - PSE가 낮아진 것을 개선(progress)이라 표현한 것에 관하여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지난 2010년 OECD 농업각료회의 선언문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는 호주 등의 주장과 사무국의 설득에 의하여 기존의 표현을 수용하기로 결정됨.

## **2. 'OECD-FAO 공동 농업전망 2012-21판' 공개 결정 논의**

- OECD 사무국 및 FAO에서 농업전망 2012-21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회원국들에 설명함.
  -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바이오 연료, 곡물, 유지류, 당류, 육류, 낙농제품, 수산 등 개별 상품시장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의 최종본은 6월말 로마에서 FAO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임.
- 회원국들은 사실관계 및 편집 등에 관한 경미한 수정사항을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6.7일 까지 최종 초안을 온라인을 통하여 회람한 후 서면 의견을 받기로 함.

## **3. '가격변동성 분석을 위한 확률모델 개발' 보고서 공개 결정**

- 사무국은 제56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기한 수정사항들을 보완한 보

고서의 수정본을 사무국 명의 워킹페이퍼로 공개하는 것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회원국들은 수정된 보고서의 공개를 승인하였으며, 모델링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4. 일반서비스추정치(GSSE) 개선을 위한 토론

- 사무국은 현재 GSSE의 정의 및 분류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국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정책들을 분류하기 곤란하여 농정평가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임을 설명함.
- 사무국이 제시한 GSSE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SSE 구성의 이론적 타당성) GSSE 개선 작업은 향후 OECD 전반의 농정방향과 일치하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특히 농업과 식품가공산업처럼 수직으로 계열화된 산업에 대한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어떠한 조건에서 GSSE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같이 회원국들이 실행 가능하도록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 (개별변수의 측정가능성) 농업과 관계된 다양한 지원(검사, 인프라)들이 생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며, 실제 통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국제적인 비교가 쉽지 않고, 세부 분야별로 어느 정도까지의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별 비교가능성) 자료의 수집가능성과 국제적인 비교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GSSE 개선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정책개선을 위한 활용방안) 새로운 GSSE 분류체계가 회원국들의 농정 개혁이나 농정방향 제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GSSE 개선의 목적과 이로 인한 득실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사무국은 최근 신흥경제국에서 GSSE에 해당하는 정책이 늘어 이를 정확히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별농가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정부정책수단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2010년 G20 각료회의에서 제기되어 GSSE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

함.

- GSSE의 개선 내용이 내년도 농정평가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은 일정상 어려울 것임을 밝힘.

## 5. 농업투자에 관한 OECD 작업 내용 보고

- OECD 개발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서 농업분야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발위원회의 작업 내용을 설명하였음.
- 농업투자를 위한 정책틀(PFIA;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in Agriculture)은 민간부문의 농업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임.
- 농업투자를 위한 정책 평가 및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으며, 부르키나파소,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등에 활용되었음.
- 인도네시아 농업정책평가 보고서 작성시에도 참고가 되었으며, 농업위와 투자위의 공동작업 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작업 중인 '농업공급체인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6월 중 회원국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임.

## 6.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진행상황 보고

- 사무국은 진행 중인 위험관리 관련 연구의 개요를 보고함
- 가축질병, 기후변화, 개도국 대상 연구 등 3개 영역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개도국 대상 연구는 농가단위 위험관리 분석,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리뷰, 식량불안정성에 관한 개념적 분석 등의 세부과제로 구성됨
- 가축질병에 관한 보고서의 개요를 제58차 농정시장작업반(2012.11월) 발표할 예정이며, 자문보고서의 최종본은 온라인을 통하여 회람 후 워킹페이퍼로 공개할 예정임.
- 기후변화 하의 농업위험관리 비교연구는 제33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2012.4월)에서 회원국간 토론을 거쳐 공개가 결정되었음.

- 개도국 농가단위 위험관리는 ‘개도국 소농의 위험관리’ 보고서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다음 회의(제58차 농정시장작업반)에서 초안을 공개하기로 함.
- 개도국 소농의 위험을 정리하여 OECD 회원국과 비교할 것이며, 위험관리 제도에 관한 분석도 포함될 것임.
-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3개국에 대하여 OECD 회원국과 동일한 방식을 통하여 농가단위 분석을 실시할 것임.
- 개도국에 관한 비교연구 및 리뷰는 멕시코의 자발적 기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임.
- 사무국은 식량 불안정성(food insecurity)에 관한 개념적 분석(concept note) 보고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음.
- 향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식량안보의 안정성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며,
- 연구 진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함.
- 관련된 연구는 2013-14 PWB에도 포함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임.
- 회원국들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보고서를 다음 회의(제58차 농정시장작업반)시 제시하기로 함.

## 7. 기타 보고사항

- 사무국은 게이트재단의 후원 하에 FAO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MAFAP(Monitoring African Food and Agricultural Policy)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함.
- 농정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임.
- 국가별 평가가 진행 중이며, 특히 부르키나파소, 말리,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시행할 예정임.
- 향후 7~8월 중 국가별 조사를 완료하여 10월 중 게이트재단 및 OECD,

FAO에 보고하여 2013년 3월 중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임.

-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평가 작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함.
  - 인도네시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158차 농업위원회(날짜 추가)에서 인도네시아 농업부 및 회원국간의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완된 최종 보고서를 9월 중 공개할 예정임.
  - 카자흐스탄의 농정 평가를 위하여 6월 중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라운드 테이블, 현장방문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2013년 1/4분기 중 온라인을 통한 초안을 공개 후 11월 농업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리뷰 작업이 있을 것임.
- 식품체인네트워크 미팅은 10월 25~26일 '영양과 건강을 위한 식품체인'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될 예정임.
  -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홈페이지([www.oecd.org/agriculture/foodchainnetwork](http://www.oecd.org/agriculture/foodchainnetwork))에 업데이트 예정임.

I. 회의명 : 제67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5.29일 오전, 파리 OECD 본부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농림수산물부 국제협력총괄과 김호균 사무관, 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문한필 연구위원, 당대표부 이안호 참사관

V. 핵심요지 :

- 농업위 사무국은 '식품수입관련 규제의 설계 및 이행'에 관한 보고서 진행상황을 설명하였고, 회원국들은 TBT(기술적 무역장벽) 관련 내용 및 추가 사례 조사 등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이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진행 상황에 만족하며 분석 모형의 한계,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에 관한 내용 반영 등 개선사항들을 지적함.
- 회원국들은 농산물 수출제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료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함.

VI. 관찰 및 평가/건의 :

- 농업무역공동작업반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역무역협정(RTA) 관련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례분석 등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농산물 수출제한과 관련된 자료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자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하여 지역내 쌀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VII. 상세내용 :

## 1. '식품수입 관련 규제의 설계 및 이행(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보고서 경과보고

- 사무국은 연구개요 및 분석결과, 추가적인 연구방향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함.
- 본 연구는 기존 3개(NAFTA, EU-Swiss, EU-Chile) 지역무역협정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다자협상에 적용가능한지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규제당국은 이해관계자에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영향평가 방식 결정시에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무역협정들은 상이한 분쟁조절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향후 규제의 무역촉진 효과 및 비용, 국가의 연관 정도, 수출산업의 연관정도 등에 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임.
-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연구진행상황에 만족하면서도 TBT(기술적 무역장벽 조치)에 대한 추가 연구, 지역무역협정 사례 추가, 개별 규제의 영향평가 및 비교, 정책적 제언 제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
- 사무국은 TBT에 관한 내용은 추가작업이 필요하나, 시간상의 문제로 깊이 있는 작업은 어려울 수 있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규제의 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은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본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설명함.

## 2. '지역무역협정(RTA)이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경과보고

- 사무국은 RTA가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한 자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
- 1998~2009기간 체결된 78개 RTA의 관세양허 및 국가간 교역자료(HS 6단위)를 가지고, 관세감축이 농산물 수출의 내연적/외연적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응용하여 분석함.
- 한편, 칠레가 체결한 FTA(1993년 이래로 42개국과 맺은 18개 FTA)가 칠레 과일산업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연구도 함께 논의함.

- 회원국들은 다수의 RTA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한 동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일부 보완 및 개선 사항을 지적함.
- 프랑스는 비관세조치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본 연구가 FTA 체결과 교역증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모형의 설명력이 낮으며, 다양한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이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의 한계를 지적함.
- 미국은 이번 연구가 향후 FTA와 다자무역협상이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되기를 희망함.
- 우리나라는 동 보고서의 추정결과는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R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계측되었으며, 이는 농식품은 계절성과 수송 거리의 제약 등으로 인해 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출국이 제한되어서, 실질적인 공급독점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인하 혜택은 수출국이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함.

#### 4. 농산물 수출제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진행 상황 설명

- 사무국은 수출제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함.
-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체코, 마케도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8개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음.
- 수출세(export tax)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수출금지, 수출쿼터, 최저가격 등의 수단도 사용되고 있음.
- 향후 수집된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무역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원자재(raw material)에 관한 연구와 진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음.
-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은 자료 수입 대상국가의 확대를 요청함.
- 미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지역 농산물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하여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 일본은 조사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임을 강조함.
- 한편 스위스는 기존 조사된 자료의 내실화가 중요하며, 수입국 측면에

도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함.

- EU는 일부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의 정보수집이 늦어지는 이유를 질의하였고, 프랑스는 연구의 목적에 관하여 사무국의 설명을 요청함.
- 사무국은 본 연구가 11월 말까지 진행될 것이며, 대상국가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함.
  - 또한 러시아의 답변이 늦어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본 연구는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며 분석 작업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설명함.

I. 회의명 : 공동연구프로그램(CRP) 운영위원회(Governing Body)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5.31일, 파리 OECD 본부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농림수산물부 국제협력총괄과 김호균 사무관, 당대표부 이안호 참사관

V. 핵심요지 :

- 공동연구프로그램(CRP) 회원국들은 프랑스의 탈퇴로 2013년부터 전체 예산규모를 감축하여 회원국별 분담금 규모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들은 CRP 비가입 OECD회원국 및 주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 CRP 가입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결의함.
- 과학자문위원회(SAB; Scientific Advisory Body) 위원 6명(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스페인, 미국) 및 특별자문위원(일본)들의 임기는 2년 연장하기로 결정됨.

VI. 관찰 및 평가/건의 :

- CRP의 지속적 참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국내의 소관부처 및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운영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아시아 지역의 연구프로그램들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일본과 연계하여 CRP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지원건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VII. 상세내용 :

- 농업무역국 국장(Ken Ash) 및 농업담당과장(Frank Van Tongeren)은 환영사를 통하여 G20 차원의 정책 권고사항에도 농업생산성 향상이 포함되는 등 농업부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함.
- 특히 전년도 공동연구프로그램(CRP)을 통하여 중국, 인도 등 비회원국의 농업지식시스템(AKS)와의 교류가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함.
  
- 사무국은 프랑스가 2013년부터 CRP를 탈퇴함에 따라 ①전체 예산규모를 지금과 같은 수준(758천유로)으로 유지하면서 회원국별 기여금을 증액할지, ②회원국별 기여금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전체 예산규모를 감축(699천유로)할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함.
- 호주, 핀란드,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①안을 선호하지만, ②안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등은 자국의 예산상황으로 ②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힘.
- 한편 영국 및 노르웨이는 자국 사정상 회의에 불참하며, 서면으로 ②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음.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으며, 구체적인 국가별 분담금은 OECD의 분담금 결정 특성상 이번 제시한 시나리오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 \* OECD는 매년 회원국의 GDP 규모에 따라 분담금 비율을 산출하며, 이는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사무국은 CRP의 가입국 확대를 위한 실행 계획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함.
- 이스라엘, 멕시코 등 비가입 OECD 회원국에 대한 연계 강화를 통하여 가입을 설득하고 있으며,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도 CRP 가입을 설득하고 있음.
- 이에 관하여 회원국들은 프랑스의 재가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으며, 각자 농업기술분야에서 양자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사무국의 설득작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 프랑스는 CRP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국내 소관부처 불명확 등의

이유가 탈퇴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설명함.

- CRP의 과학자문위원회(SAB; Scientific Advisory Body)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동일 구성원의 활용을 2년 연장 하는 것을 승인함.
- SAB는 CRP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CRP의 활동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스페인, 미국 6개국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이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